

◆ 중국 深圳 LNG 기지, 사전자격심사 공시 임박

중국 광둥(廣東)성의 선전(深圳) LNG 수입기지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·조달·건설(EPC)에 관한 사전자격심사(PQ)가 곧 실시될 예정이다.

중국 최초의 LNG 수입기지 건설사업인 이번 프로젝트는 2005년 말의 조업개시를 목표로 광둥성 선전시 외곽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수입능력을 갖춘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다. 중국은 동 터미널의 수용능력을 2008년까지 연간 500만 톤 규모로 확장시킬 예정이다. 총 투자액은 2005년까지 약 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, 중국해양석유총공사(CNOOC)가 33%, 영국 BP 30%, 중국 및 홍콩의

여러 전력가스회사가 나머지를 출자하고 있다. 2001년 11월에 실시된 LNG 공급원 입찰에는 인도네시아의 탕그 LNG(BP),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, 호주의 노스웨스트셀프(NWS) 등이 참여하였다.

EPC의 입찰에는 기본설계(front-end engineering and design: FEED)를 담당했던 日揮·미국 KBR을 비롯하여 다수의 일본업체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, 중국이 제시한 자국산 기자재 사용 등 특수 조건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【金 廷 勳】